

학교문법에서의 상대높임법의 위계와 20·30대 상대높임법 인식의 비교

김병건(한국국제대)

차 례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20·30대 상대높임법의 위계
4. 결론

1. 서론

학교문법은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등과 더불어 국어교육·한국어교육 등에서 ‘표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언어 사용과 차이가 존재하여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들을 따분한 ‘규정’ 혹은 ‘규칙’ 정도로만 여기는 것도 사실이다.¹⁾

학교문법의 상대높임법²⁾ 관련 서술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표 1> 학교문법의 상대높임법 체계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격식체	하십시오체	가십니다	가십니까?	가십시오	(가시지요)	-
	하오체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가구려	갑시다	가는구려
	하계체	가네, 감세	가는가?, 가나?	가게	가세	가는구먼
	해라체	간다	가냐?, 가니?	가(거)라, 가렴, 가려무나	가자	가는구나
비격식체	해요체	가요	가요?	가(세/셔)요	가(세/셔)요	가(세/셔)요
	해체(반말)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1) 오랫동안 지속된 ‘자장면’ 대 ‘짜장면’의 논쟁은 이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짜장면’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기 전, 표준어 관련 가장 많은 질문은 “왜 짜장면을 짜장면이라 쓰지 못하는가?”였다. 아마도 국어를 연구하는, 그리고 관련 수업을 진행하는 많은 분들의 공통된 기억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2011년 8월 31일에 ‘첫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에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 있어 이를 복수표준어로 인정한 경우, 둘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 이를 인정하여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 셋째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와 다른 표기 형태도 많이 쓰여서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의 39개 항목을 선정,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표준어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복숭아뼈, 간지럽히다, 나래, 내음, 짜장면, 택견 등”이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2) 높임법은 대우법(서정수, 성기철), 존대법(허웅), 경어법(이승녕), 존비법(고영근), 존경법·공대법(이희승), 말의높임(최현배), 공대법·하대법(김민수, 이기문)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어떤 입장에서 이 언어현상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게 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입장 차에 대한 논의는 뒤로 하고 학교문법의 술어인 높임법을 기본적인 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하 이 논문에서는 학교문법상 용어인 평서법은 ‘서술법’, 의문법은 ‘물음법’으로 적도록 하겠다.

고등학교 문법책에서는 위의 <표 1>과 함께 “상대높임법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다.”, “상대높임법은 종결표현으로 실현되는데,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격식체는 의례적 용법으로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데 반하여, 비격식체는 정감 있고 격식을 덜 차리는 표현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 설명들은 현재 20·30대의 높임법 인식과 부합하지는 않는 듯하다. 20·30대들은 우선 <표 1>의 상대높임법 위계에서 보이는 하오체와 하계체를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으며³⁾,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기 때문이다.⁴⁾

이런 이유로 이 논문에서는 학교문법에서의 상대높임법 위계와 20·30대 상대높임법 인식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첫째 하오체와 하계체가 20·30대에게도 여전히 유효한지, 둘째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구분이 실제 언어생활에서도 유효한지, 셋째 만약 ‘격식체/비격식체’의 구분이 유효하지 않다면 하십시오체에서 해라체까지의 위계를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높임법 연구는 위계와 위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뤘다.⁵⁾

위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중 유송영(1994)는 불특정 다수를 청자로 하는 라디오 DJ의 발화 분석을 통해 ‘힘’(power)과 ‘유대’(solidarity)가 위계 결정의 결정적 요인이며, 이들의 정도성에 따라 대우 체계 안에서의 각 등급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익섭(1994)에서는 연령, 직위, 항렬 등을 포함하는 ‘서열’과 격식성, 체면, 권위 등과 관련된 ‘친분’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⁶⁾ 이외에 화자나 청자의 절대적 나이, 성별 등이 간접 요인이 된다고 했다. 박혜경·권순희(2006)에서는 ‘나이, 지위, 세대, 성, 친밀’을, 한길(2002)에서는 ‘나이, 사회적 지위, 성별, 친밀성, 친인척 관계, 언어행위가 이루어지는 장면(공식/비공식, 한 사람/다수, 특정/불특정, 단독장면/상관장면)’을 등급 결정의 요인으로 보았다. 김정호(2005)에서는 ‘공적/사적 관계, 친밀/소원 유대 관계, 대화 참여자의 성, 지위 관계(사회적 신분, 계급, 계층 또는 나이)’를 등급 결정의 요인으로 보았는데, ‘공적/사적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대화 내용이나 상황보다는 대화참여자들이 관계를 맺는 장소와 관련이 깊다고 본 점이 특징이다.

연구자마다 목록과 그 이름, 적용순서 등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나이·신분 등에 따른) 사회적 높낮이’, ‘(격식·예의·체면 등과 관련된) 친소’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⁷⁾이 영향을 미친다고 정리될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장면’은 한길(2002)의 분석처럼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높임법의 위계에 대한 연구들은 “반말을 위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동일 화자, 동일 청자 간의 대

3) 학교문법에서와는 달리 대부분이 한국어교육용 교재에서는 하오체와 하계체를 제외한 ‘함쇼체/해라체/해요체/해체’의 체계를 제시, 설명하고 있다.(이은희(2010) 참조)

4) 예를 들어, 격식체가 사용되어야 할 것 같은 의례적 상황인 발표와 토론 등에서 비격식체를 사용하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다.

5) 성기철(1999)에 따르면 높임법은 1910년대 이후 많은 변화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성기철(1999)을 통해 1910년대 하오체는 지금의 해요체와 비슷한 기능과 분포를 보이며, 하오체나 하계체가 쓰였을 자리에 지금은 거의 해요체와 해체가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해요체의 등급을 하오체의 한 가지로 본 최현배(1937)의 견해는 지금의 언어자료와 직관으로 맞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정확한 관찰 결과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면 높임법의 연구사는 높임법의 변화와 함께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보다 정밀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들을 뒤로 미루고, 연구된 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비교·정리토록 하겠다.

6) 이익섭(1994)와 유송영(1994)은 요인에 대해 흡사해 보인다. 하지만 이익섭(1994: 227)에서는 “<서열>은 power 및 rank, status를 다 포함하는, 또 <친분>은 solidarity, familiarity 및 intimacy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굳이 譯語를 하나씩 고르라면 각각 rank와 familiarity가 가장 적합할 것이다.”라고 ‘서열’과 ‘친분’을 정의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이익섭(1994)은 유송영(1994)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이 확인된다.

7) 한길(2002)에 따르면 공적인 자리인지 사적인 자리인지(공적/사적 장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상관/단독 장면), 다수의 청자가 있는지 일대일 대화인지(다수/한 사람 장면) 등에 따라 높임법 화계의 선택이 달라진다. 본고에서는 이런 장면 요인 중 ‘공적/사적 장면’과 ‘상관/단독 장면’만을 논의에 포함시켰다. 다른 요인들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뒷날로 미룬다.

화에서 등급을 넘나드는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 등에 따라 크게 둘로(‘일원적 체계’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는 ‘이원적 체계’) 나뉜다. 이익섭(1974, 1994), 유송영(1994)와 같은 연구들은 일원적 체계이고, 서정수(1980), 성기철(1991)과 같은 연구들에서는 이원적 체계이다. 일원적 체계는 대체로 (1)과 같고, 이원적 체계는 학교문법의 체계(<표 1> 참조)와 같다.

(1) 해라체<반말체(해체)>하계체<하오체<해요체<합쇼체 (이익섭 1974:57)

이들은 먼저 반말에 대한 처리에서 차이가 나는데, 최현배(1937)에서는 ‘등외’, 고영근(1974: 84)에서는 “아직 독자적 등분을 구성할 수 있는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오·합쇼체의 한 보충물(補充物)로만 처리”한 반말이 학교문법에서처럼 ‘하십시오-하오-하계-해라’의 위계와 다른 영역을 형성한다고 보는 쪽은 이원적 체계가, 반면 (1)에서처럼 해체와 해요체를 ‘하십시오-하오-하계-해라’와 같이 하나의 위계로 묶는 쪽은 일원적 체계가 된다.

이른바 ‘넘나듦’에 대한 해석도 일원적으로 보느냐, 이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다.⁸⁾

(2) ㄱ. 김영희(1996)

“인접 경어 등급 사이엔 넘나듦이 가능하나, 하계체와 하오체만은 넘나듦이 불가능하다. 이런 사실에 근거를 두어 경어 등급은 넘나듦이 불가능한 ‘합쇼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를 한 별의 화계로 설정해야 한다. 즉 해라체와 반말체, 반말체와 하계체, 하오체와 해요체, 해요체와 합쇼체 사이의 넘나듦은 반말체와 해요체가 다른 층위의 화계에 속하기 때문이다.”

ㄴ. 최석재(2007)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화계를 바꿀 때는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고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 특히 비격식적 상황에서의 이런 넘나듦은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며 일부 격식체의 환경에서 비격식체가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청자가 대중이거나 불특정하기 때문에 오는 압력 또는 힘으로 인해 높임의 최상형을 사용하려는 경향 때문이지 특정 화계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비격식체를 피하는 것이라면 격식적이면서 낮추어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해체가 아닌 해라체가 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성기철(1999)에 따르면 1910년대에는 하오체가 하십시오체의 영역을 넘나들었다. 즉 김영희(1996)에서 지적한 하계체와 하오체가 넘나듦이 불가능한 이유는 하계체와 하오체의 사용영역이 줄어들면서 한정된 영역에서만 쓰이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본다면 넘나듦이 불가능한 것이 이원적 체계를 설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서정수(1980)에서 주장한 이원적 체계의 ‘격식/비격식’ 틀은 이후 높임법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쳐 많은 연구들이 이 틀에서 높임법을 해석했다.⁹⁾ 서정수(1980)에 따르면 격식체란 잘 모르는 사이 또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비격식체란 친밀성과 통하며 친밀한 관계 또는 사적이고 허물없는 자리에서 통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성기철(1991)에서도 ‘상위청자제약, 장면제약/현장제약, 언어적제약’과 함께, ‘격식성의제약’(인간적 유대가 두터운 경우 존대 대신 비존대가 쓰이는 경우가 있다)을 들어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구분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한길(2002)에서도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뒤섞기 현상은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통해 ‘격식/비격식’의 틀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890~1920년대 신소설과 1999~2001년 TV방송대본의 비교를 통해 ‘부부지간, 친족관계, 혼인에 의한 친족관계’에서의 높임법의 변화 양상을 살핀 이경우(2003, 2008)에서는 “이전에는 장모가 사위에게 하계체를 쓰고 사위는 장모에게 합쇼체를 썼는데, 현대에서는 장모가 사위에게 해체나 하계체를 쓰고 사위는 장모에게 해요체를 쓰게 되었다.”며, 이와 같은 변화로 보아 “현대로 오면서 장모와 사위 사이가 친밀한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고 주장

8) (2)는 글쓴이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한 것이다. 표현이 원본과 동일하지 않다.

9) 한길(2002), 임홍빈·장소원(1995)와 같이 다른 해석을 시도한 연구들이 있지만 격식과 비격식으로 나누는 이원적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인다.

했다.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지지를 보내지만, 이 ‘격식/비격식’ 틀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높임법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많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격식/비격식’으로만 선택이 결정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십쇼체도 얼마든지 비격식체로 쓰이고 있으며 해라체는 거의 격식성이 없어 보인다.”는 성기철(1999; 41)의 지적과 이익섭(1994; 216)의 “등급은 최종적인 결과요, 격식성은 그 결과는 일으키는 한 요인일 것”이라는 주장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박혜경·권순희(2006)에서는 어린이는 주로 해요체를 쓰고, 청소년은 토론의 열기가 가열될수록 해요체로 전환되어 갔다는 연구결과를 보여 준다. 이는 토론이라는 전형적인 격식 상황에서의 결과로 어찌면 ‘격식/비격식’ 틀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최소한 30대 이하에서는 ‘격식/비격식’ 틀이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3. 20·30대 상대높임법의 위계

3.1. 설문의 설계와 시행

설문은 ‘20·30대 상대높임법 위계에 대한 인식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설문 속 가상의 대화 상대자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없애기 위해 모두 남성인 ‘고모부, 삼촌, 이모부, 외삼촌,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아버지’로 했다. 특히 ‘고모부, 삼촌, 이모부, 외삼촌’에게로의 발화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들은 사람마다 위계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인(즉 배운 대로 혹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대로) 대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아버지’와의 대화는 가족 내 위계에 대한 응답자의 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누가 당신과 더 ‘가깝습니까’(친합니다)?”라는 물음을 통해 ‘친소’를, “당신이 생각하기에 누가 더 ‘높은 어른’이라고 생각됩니까?”라는 물음을 통해 ‘높낮이 정도’에 대한 응답자의 정보를 얻었다. ‘높은 어른’이란 ‘사회적 지위, 나이, (가족 내) 영향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판단 기준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집안 내에서도 높은 어른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족 내 영향력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도 할 것이다.- 높낮이를 결정하는 요소를 특정하지 않았다. 보조적 지표로 “당신이 생각하기에 누가 가족 내 ‘서열’이 높습니까?”라는 물음을 주어 ‘높낮이 정도’에 대한 응답자의 판단을 확인하고자 했다.¹⁰⁾

그리고 ‘가능한 모든 대답’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이는 선호도 조사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한 등급에 2개 이상의 보기를 줌으로써 전형적인 선택을 막았으며, 여러 개 등급을 동시에 선택 가능하게 함으로써 등급 간 넘나들을 보다 자연스럽게 관찰하려 했다. 또 복수의 보기는 어투의 차이가 등급 선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보았듯, 높임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다양하다. 이원적 체계의 중요한 구분점인 격식성을 구성하는 ‘친소’와 ‘(공적/사적) 장면’, 등급을 나누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회적 높낮이 차이’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 ‘(상관/단독) 장면’과 ‘대화내용’¹¹⁾ 등도 관련이 되는 듯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모든 요인들을 살피지는 못했다. ‘장면’은 사적이면서 상관적 장면인 가족 간의 대화로 고정했으며, ‘대화내용’에 대한 실험적 배려는 없다.

등급별 맺음씨끝의 목록은 한길(2002)를 참고로 했으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10) 실제 실행 결과 ‘높은 어른’에 대한 응답과 ‘서열’에 대한 응답이 달라진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응답자가 설문자의 의도와는 달리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시킨 결과로 보인다. 이런 경우, ‘높낮이 정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힘들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11) 예를 들어, ‘(공적/사적) 장면’ 등과 관계없이 ‘요즘 어떻게 지내?’와 같은 사적인 내용에 대한 대답은 “잘 지내요.”와 같이 해요체가 우세한 반면, ‘그 프로젝트의 준비는 잘 되고 있어?’와 같은 공적인 내용에 대답은 “잘 되고 있습니다.”처럼 하십시오체가 우세한 듯 보인다. 이에 대한 분석은 뒷날로 미룬다.

<표 2> 반말 맺음씨끝 목록

서술법	단순형	-아, -지, -게, -네, -는군, -거든, -데, -는데
	복합형	-는다나, -자나, -으라나, -는다고, -냐고, -자고, -으라고, -는다니까, -냐니까, -자니까, -으라니까, -을게 ¹²⁾ , -을래, -는걸, -을걸
물음법	단순형	-아, -지, -게, -네, -는가, -나, -데, -는데
	복합형	-다니, -느냐니, -자니, -으라니, -는다고, -냐고, -자고, -으라고, -는다면서, -을까, -을래
피임법	단순형	-아, -지
시킴법	단순형	-아, -지

<표 3> 하십시오체 맺음씨끝 목록

서술법	-습니다, -는답니다, -나이다, -오이다, -올시다
물음법	-습니까, -나이까, -오이까
시킴법	-으십시오, -으소서

<표 4> 해라체 맺음씨끝 목록

서술법	단순형	-는다, -오마, -는구나, -으니, -을라, -노라, -누나
	복합형	-는단다, -느니라, -도다, -을진저 ¹³⁾ , -을지니라
물음법	단순형	-느냐, -니
	복합형	-으렸다, -을쏘냐 ¹⁴⁾
피임법	단순형	-자
시킴법	단순형	-아라, -으려므나
	복합형	-으렸다, -을지어다

설문은 8월 7일과 8일에 건국대학교 교내와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하고 일부는 이메일을 통해 받았다. 응답자는 모두 139명이며 이 중 남자는 93명, 여자는 46명이다. 응답자의 연령은 19세에서 39세까지이며, 평균 나이는 25.9세이다.¹⁵⁾

설문지는 응답자별로 번호가 매겨져 있으며, 설문분석 결과표에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2’로 표기했다. 설문문항의 번호는 ‘(1), (2), (3) 등’과 같이 표기했으며, 가정된 대화 상대자인 고모부는 ‘가’, 삼촌은 ‘나’, 이모부는 ‘다’, 외삼촌은 ‘라’로 표기했다. 그리고 하십시오체는 ‘A’, 해요체는 ‘B’, 해체는 ‘C’, 해라체는 ‘D’로 표기했다. 예를 들면, ‘가_서술_(1)’은 ‘고모부에게 서술법 맺음씨끝을 쓴 (1)번 설문문항’이 되며, ‘나>가>다>라’는 ‘삼촌>고모부>이모부>외삼촌’의 위계를 보여준다. 또 ‘A,B’는 하십시오체와 해요체 모두에 응답자가 표시했다는 말이다.

3.2. 설문 결과의 분석

3.2.1. ‘하오체’와 ‘하계체’

하오체와 하계체는 1910년대 이후 많은 변화를 했다. 변화의 결과, 특히 현재를 사는 20·30대에게는 더는 유효한 언어형식이 아니게 되었다.

고영근(1974)에 따르면 1930년대 이전의 하오체와 하계체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12) 한길(2002)에는 ‘-을게’로 되어 있으나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을께’로 고쳤다.

13) 한길(2002)에는 ‘-을진저’로 되어 있으나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을진저’로 고쳤다.

14) 한길(2002)에는 ‘-을쏘냐’로 되어 있으나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을쏘냐’로 고쳤다.

15) 설문은 20·30대 상대높임법 위계에 대한 인식 조사를 목적으로 했으나 실제 설문 응답자는 20대가 주를 이루어 20대에 치우친 결과를 보여준다. 20대와 30대가 상대높임법 인식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지금으로써는 가늠하기 힘들나 일단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설문 결과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3) ㄱ. 하오체

- a. 친족관계의 비자가 존자를 대할 때
- b. 사회적 지위관계의 존자가 비자를 대할 때
- c. 지위와 연령이 상치(相馳)될 때
- d. 존비의 낙차(落差)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ㄴ. 하계체

- a. 혼인에 의한 친족관계의 존자가 비자를 대할 때(장모가 사위에게, 손윗동서가 손아랫동서에게)
- b. 지위·연령관계에 있어 비자라도 해라체를 쓸 수 없다고 화자에게 판단되면(아들 친구에게, 딸 친구에게)
- c. 계층적 관계의 존자가 비자를 대할 때(화자와 계급의 격차가 심하지 않거나 연상이거나 해서…)
- d. 성년 이상의 평교간(平交間)에

(3)에서 알 수 있듯이 하오체의 맥락은 지금은 거의 해요체나 하십시오체가 담당하고 있다. (3ㄱa)는 해요체나 하십시오체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3ㄱb)는 (3ㄴc)와 비슷하지만 ‘공개적 상황’(고영근 1974ㄴ; 75)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 역시 해요체나 하십시오체로 대체되었다. (3ㄱc)는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나이가 어린 부장이 나이 많은 과장에게 지시를 내리는 경우”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에는 하오체 사용을 기대하기 힘들다. (3ㄱd)의 경우, 고영근(1974ㄴ)에서는 ‘방안에서 누구냐고 묻는 말에 대한 답변,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신분을 방안에서 묻는 말, 장래 순위 매부(妹夫)될 사람이 처남(妻男)될 사람에게 하는 말’ 등이 그 예가 되고 있는데 경험적으로 우리는 이 경우 해요체 혹은 하십시오체를 쓴다는 것을 알고 있다.¹⁶⁾ 이렇게 본다면 1900년대 초 하오체는 지금의 해요체와 하십시오체에 걸친 영역을 가지고 있었으며¹⁷⁾ 점점 축소되어 대부분 해요체나 하십시오체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계체의 경우 (3ㄴb,c,d)의 쓰임은 사라졌다. (3ㄴb,d)는 해체로, (3ㄴc)는 해요체로 대체되었다.¹⁸⁾ (3ㄴa) 정도만이 남아있으나, 이 역시도 해체나 해요체로 대체되어 가고 있으며¹⁹⁾, 50대 이상에서 간간히 발견될 뿐 20·30대에게는 찾아보기 힘들다.²⁰⁾

3.2.2. ‘격식체’와 ‘비격식체’

20·30대에게는 하오체와 하계체가 더는 유효하지 않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표 1>의 체계는 20·30대에게는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16) 일부 인터넷 기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오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정복(2004)에서는 이러한 인터넷에서의 하오체의 쓰임을 ‘권위의식 표현 전략’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이는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구별되는 사례로 일종의 ‘말놀이’이다.
 17) 성기철(1999; 21~22)에서도 1910년도의 하오체는 아주높임의 자리에서도 쓰인 “종으로는 상당한 높임의 대우에까지, 그리고 횡으로는 매우 광범한 영역에 걸쳐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화제”로 보았다.
 18) 후술하겠지만 격차가 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십시오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하십시오체와 해요체의 등급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9) 사위에게 하계체를 쓰는 장인·장모가 점점 줄어드는 듯 보인다. 장인·장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더욱 해체가 우세해 지는 듯한데, 보다 정밀한 연구는 뒷날로 미룬다.
 20) 이외에 한길(2002), 성기철(1999), 서정수(1980), 이경우(2003, 2008), 최석재(2007), 유송영(1994), 박혜경·권순희(2006), 장희은(2009) 등에서도 하오체와 하계체가 ‘최소한’ 젊은이들에게는 쓰이지 않고 있음이 보고된다.
 한편 임동훈(2006; 310)에서는 “지금의 10대, 20대가 하계체, 하오체를 안 쓴다고 해서 하계체, 하오체의 등급상의 지위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하계체, 하오체를 쓰는 자리가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지금으로써는 예단(豫斷)하기 힘들다.
 그리고 하오체와 하계체를 실제로는 쓰지는 않지만 인식가능하기 때문에 말본상 유효하다는 주장도 가능한 듯 보인다. 하지만 인식가능함이 언어사용과 실제로 일치하는지는 증명되어야 할 문제다. 즉 ‘어떤 말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말이 머릿속 말본 체계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외국어를 배울 때 읽거나 들은 말을 이해했다고 해서 반드시 쓰거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볼 때 인식가능함이 말본 체계와 일치한다고 보는 주장에는 부정적이다. 은유 표현을 이해하는 것은 그 표현이 말본 체계에 존재해서가 아니라 인지 체계의 유연성 덕분인 것도 이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

<표 5> 20·30대 상대높임법 체계(가정)

	격식	비격식
높임	하십시오체	해요체
안높임	해라체	해체

<표 5>의 상대높임법 체계는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나누어지는 이원적 체계이다. 이러한 격식체와 비격식체 구분은 ‘친소’와 ‘(공적/사적) 장면’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인들이 화자의 상대높임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공적/사적) 장면’이 상대높임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설문은 가족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존의 격식체와 비격식체 구분을 바탕으로 한다면 대화상대자가 자신보다 순위라면 하십시오체가 거의 나오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아래 설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지 않다.²¹⁾

<표 6> 화계별 선택 빈도수

문항 화계	(1)	(10)	(11)	(2)	(3)	(8)	(9)	(4)	(5)	(6)	(7)	합계
A	22	7	11	10	17	6	12	6	17	16	19	143
B	51	77	59	77	63	89	73	77	69	73	51	759
C	0	0	3	7	0	0	4	6	1	2	7	30
D	0	0	1	0	0	0	0	0	0	0	0	1
A,B	54	42	50	28	47	31	36	32	35	38	44	437
A,B,C	1	2	2	3	1	2	3	3	5	0	5	27
B,C	1	1	3	4	1	1	0	5	2	0	3	21
C,D	0	0	0	0	0	0	1	0	0	0	0	1
합계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419

<표 6>에서 보듯, 해요체인 B가 우세하기는 하지만 하십시오체인 A를 선택한 이가 다수 있으며 두 체계를 넘나들이 가능함을 표시한 이들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 장면, 동일 인물의 대화에서 각 위계를 넘나드는 것이 가능함을 보인 것으로 ‘격식/비격식’의 구분의 중요한 기준인 ‘(공적/사적) 장면’은 화계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말해 준다.

최석재(2007; 426)에 따르면 격식이든 비격식이든 하나의 격식을 유지하는 경우가 21개, 격식이 바뀐 경우가 1275개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유송영(1994; 308)에서는 전형적인 격식 장면인 ‘방송’에서도 비격식체인 해요체가 사용되고 있음이 보고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본고의 논의를 뒷받침해 준다.

3.2.3. ‘하십시오체’와 ‘해요체’

격식과 비격식의 구분에 ‘(공적/사적) 장면’이 유효하지 않다면,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설문의 두 가지 물음인 ‘친소’와 ‘높낮이 정도’를 양 끝단에서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이 분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듯 보인다.²²⁾ 즉 ‘낮은 친분·높은 어른’을 대하는 말과 ‘높은 친분·낮은 어른’을 비교해 보면,²³⁾ ‘낮은 어른·높은 친분’(■■■■■■)보다 ‘높은 어른·낮은 친분’(■■■■■■)에게 하십시오체인 A가 더 높은 빈도를 보인다.

21) 응답자 139명 중 문항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 10명을 제외하고 129명의 통계를 내었다.

22) 상대높임법 선택과 관련된 분석은 3.2.2 논의의 대상자 129명 중 ‘높은 어른’ 항목과 ‘서열’ 항목 대답이 일치하지 않는 46명(각주10 참조), 고모부·삼촌·이모부·외삼촌 중 1인 이상이 없어 비워둔 21명, 하십시오체인 A나 해요체인 B, 혹은 A와 B를 동시에 모든 항목에 똑같이 표시한 17명을 제외한 45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의 선택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2]를 참조하기 바란다.

23) [부록 2] 중 고모부, 삼촌, 이모부, 외삼촌의 응답에서 구분점을 발견하기 힘든 4, 12, 26, 33, 36, 50, 64, 68, 80, 83, 108, 113, 119, 132, 135번은 제외했다.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7> ‘친소’와 ‘높낮이 정도’ 응답 결과

번호	연령 (만)	성별	친소	어른	가.서 술-(1)	가.물 음-(10)	나.서 술-(11)	나.물 음-(2)	다.서 술-(3)	다.물 음-(8)	라.서 술-(9)	라.물 음-(4)
7	28	1	라>다> 나>가	가>다> 나>라			B	B	B	B		
23	21	1	라>다> 나>가	가>다> 나>라			B	B	A,B	B		
59	25	1	나>다> 라>가	가>다> 라>나					A	B	B	B
86	27	1	라>다> 나>가	가>다> 나>라			B	B	B	B		
97	22	1	라>나> 다>가	가>다> 나>라			A,B	B	B	B		
101	20	2	나>라> 다>가	가>다> 라>나					A,B	B	B	B
128	29	2	라>다> 나>가	가>다> 나>라			A,B	A,B	A,B	A,B		
130	35	2	나>라> 가>다	다>가> 라>나	B	B					B	B,C

이렇게 ‘더 높고, 더 낮선’ 이에게 하십시오체 사용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하십시오체와 해요체의 등급상 차이 때문이다. 만약 하십시오체와 해요체의 등급상 차이가 없다면 ‘더 높은’ 사람에게 특별히 하십시오체를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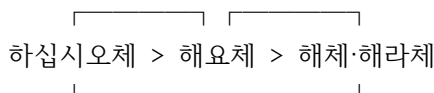
넘나들에서도 하십시오체가 해요체보다 높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 해요체는 해라체 또는 해체와 섞여 쓰일 수 있는 반면²⁵⁾ 하십시오체는 해라체 또는 해체와 섞이는 일은 없다.

(4) ㄱ. *축하드립니다. 합격했어.

ㄴ. 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확실해?

(4ㄴ)이 가능한 이유는 해요체의 등급이 해체와 해라체와 간격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4ㄱ)처럼 하십시오체는 이런 전환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해체 혹은 해라체와 섞여 쓰이기에는 등급상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5)와 같다.

(5) 넘나들 가능



넘나들 불가능

더 높은 등급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요인은 ‘친분’과 ‘높낮이’ 중 어느 쪽일까? 이를 위해선 (6)의 표들을

번호	나이	성별	친소	어른	가.서 술-(1)	가.물 음-(10)	나.서 술-(11)	나.물 음-(2)	다.서 술-(3)	다.물 음-(8)	라.서 술-(9)	라.물 음-(4)
68	23	1	나>라> 다>가	가>다> 라>나	A,B	A,B	A,B	A,B	A,B	A,B	A,B	A,B
83	25	1	라>다> 나>가	가>나> 다>라	B	B	B	B	B	B	B	B
108	29	2	나>가> 라>다	나>가> 라>다	A	A,B	A	A,B	A	A,B	A	A,B

24) 친하지 않은(낮선) 어른에게 하십시오체를 선택하는 이유는 ‘예의’라는 측면에서 실패가능성을 줄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즉 “안전하게” 가장 높은 등급의 화계를 선택하는 것이다. 서은아(2008)에 따르면 공익광고 텍스트에서는 청자높임법 중 아주높임이 가장 선호된다고 한다. 이 역시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5) 모든 경우는 아니다. 대화상대자가 자신보다 연하이거나 연상이더라도 특별한 친분관계(높낮이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아버지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전환(code switching)은 매우 의도를 가지고 아이에게 해요체를 사용하다가 특별한 장면(위험하거나, 놀라거나, 화나거나 등)에 해체나 해라체를 사용하게 되는 게 그 예가 될 것이다. 하십시오체에서는 이런 전환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선택문항과 다른 설문 문항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어느 정도의 높임 등급을 선택하는지 살펴보자.

(6) ㄱ. 높은 친분-낮은 어른

순번	친소	어른	가_서 술-(1)	가_물 음-(10)	나_서 술-(11)	나_물 음-(2)	다_서 술-(3)	다_물 음-(8)	라_서 술-(9)	라_물 음-(4)
7	라>다> 나>가	가>다> 나>라	A	A	B	B	B	B	B	B
23	라>다> 나>가	가>다> 나>라	A,B	B	B	B	A,B	B	B	B
35	라>나> 가>다	가>다> 나>라	A	A,B	A,B	A	A	A,B	B	A,B
37	라>다> 가>나	가>다> 나>라	A	B	B	C	B	B	B	C
52	라>다> 가>나	가>다> 나>라	A,B	B	B	B	A,B	B	B	B
59	나>다> 라>가	가>다> 라>나	A	B	B	B	A	B	B	B
73	라>나> 가>다	가>다> 나>라	B	B	B	B	A	B	B	B
86	라>다> 나>가	가>다> 나>라	B	B	B	B	B	B	C	C
97	라>나> 다>가	가>다> 나>라	A,B	A,B	A,B	B	B	B	B	A,B
101	나>라> 다>가	가>다> 라>나	A,B	B	B	B	A,B	B	B	B
128	라>다> 나>가	가>다> 나>라	A,B	A,B	A,B	A,B	A,B	A,B	A,B,C	A,B,C
130	나>라> 가>다	다>가> 라>나	B	B	B,C	B,C	B	B	B	B,C

ㄴ. 높은 친분-높은 어른

순번	친소	어른	가_서 술-(1)	가_물 음-(10)	나_서 술-(11)	나_물 음-(2)	다_서 술-(3)	다_물 음-(8)	라_서 술-(9)	라_물 음-(4)
2	나>가> 다>라	나>다> 가>라	A,B	A,B	A,B	A,B	A,B	B	B	B
39	나>가> 라>다	나>라> 가>다	A,B	A,B	A,B	B	A,B	B	B	B
57	가>나> 라>다	가>다> 나>라	B	B	A,B	B	B	B	A,B	B
85	나>다> 가>라	나>다> 라>가	A,B	B	A,B	B	A,B	B	B	B

ㄷ. 낮은 친분-낮은 어른

순번	친소	어른	가_서 술-(1)	가_물 음-(10)	나_서 술-(11)	나_물 음-(2)	다_서 술-(3)	다_물 음-(8)	라_서 술-(9)	라_물 음-(4)
2	나>가> 다>라	나>다> 가>라	A,B	A,B	A,B	A,B	A,B	B	B	B
27	라>나> 가>다	나>라> 가>다	A,B	B	B	B	A,B	A,B	A,B	A,B
39	나>가> 라>다	나>라> 가>다	A,B	A,B	A,B	B	A,B	B	B	B
72	라>가> 다>나	가>다> 라>나	A,B	A,B	A,B	A,B	A,B	B	B	B

ㄹ. 낮은 친분- 높은 어른

순번	친소	어른	가_서 술-(1)	가_물 음-(10)	나_서 술-(11)	나_물 음-(2)	다_서 술-(3)	다_물 음-(8)	라_서 술-(9)	라_물 음-(4)
6	다>라> 나>가	가>나> 다>라	A	B	B	B	B	B	B	B
7	라>다> 나>가	가>다> 나>라	A	A	B	B	B	B	B	B
23	라>다> 나>가	가>다> 나>라	A,B	B	B	B	A,B	B	B	B
51	나>라> 다>가	가>다> 나>라	A	B	A	A	B	B	A	A
58	다>라> 나>가	가>다> 라>나	A,B	A,B,C	A,B,C	A,B,C	A,B	A,B,C	A,B,C	A,B
59	나>다> 라>가	가>다> 라>나	A	B	B	B	A	B	B	B
65	다>라> 나>가	가>나> 다>라	A,B	B	C	C	B	B	C	C
86	라>다> 나>가	가>다> 나>라	B	B	B	B	B	B	C	C
97	라>나> 다>가	가>다> 나>라	A,B	A,B	A,B	B	B	B	B	A,B
101	나>라> 다>가	가>다> 라>나	A,B	B	B	B	A,B	B	B	B
128	라>다> 나>가	가>다> 나>라	A,B	A,B	A,B	A,B	A,B	A,B	A,B,C	A,B,C
130	나>라> 가>다	다>가> 라>나	B	B	B,C	B,C	B	B	B	B,C
133	라>나> 다>가	가>나> 라>다	A	B	A	A	A	B	B	B
138	다>라> 나>가	가>나> 다>라	A,B	A,B	A,B	A,B	A,B	A,B	A,B	A,B,C

A가 B보다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A 선택이 많은 쪽이 더 높은 등급을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A,B-B보다 A,B-A가 더 높은 등급을 선택한 것이며, A가 단독으로 선택된 A,B-A는 낮은 등급과 같이 선택된 A,B-A,B보다 더 높은 등급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6ㄱ)의 35번은 A가 있지만 A-A,B보다 낮은 등급으로 볼 수 있는 B-A,B를 선택했으며, 97번은 A,B-A,B보다는 낮지만 B-B보다는 높은 등급을, 128번은 A,B-A,B보다 낮은 A,B,C-A,B,C를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9명의 응답자들은 해요체인 B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6ㄱ)은 대체적으로 “낮은 등급”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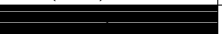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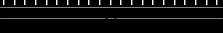



(6ㄴ)의 2번은 높은 등급을 선택했지만 39번은 A,B-A,B보다 낮은 등급인 A,B-B를, 57번은 A,B-B보다 낮은 B-B를 선택했다. 85번은 B-B보다 높지만 가, 나, 다 모두 같은 등급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등급을 선택했다고 보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6ㄴ)은 A의 빈도는 높지만 “비교적 낮은 등급”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6ㄷ)의 2번은 낮은 등급을 선택하고 있지만, 27번과 72번은 높은 등급을 선택하고 있으며 39번은 A,B-A,B보다는 낮지만 B-B보다는 높은 A,B-B를 선택하고 있어 (6ㄷ)은 “비교적 높은 등급”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6ㄹ)은 대체적으로 “높은 등급”을 선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낮은 등급”을 1, “비교적 낮은 등급”을 2, “비교적 높은 등급”을 3, “높은 등급”을 4로 가정하고 변화의 정도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8> 변화의 정도

	(6ㄱ) = 1	(6ㄴ) = 2	(6ㄷ) = 3	(6ㄹ) = 4
(6ㄱ) = 1				3
(6ㄴ) = 2			1	
(6ㄷ) = 3		1		
(6ㄹ) = 4	3			

<표 8>에 따르면 ‘높낮이 정도’가 고정된 상태에서 ‘친소’의 변화 정도(■■■■■■■■, 6ㄱ-6ㄷ, 6ㄴ-6ㄹ)는 2이지만, ‘친소’가 고정된 상태에서 ‘높낮이 정도’의 변화 정도(■■■■■■■■, 6ㄱ-6ㄴ, 6ㄷ-6ㄹ)는 1이다.

이것으로 (6ㄱ)에서 (6ㄹ)로의 변화가 3인 것과 (6ㄴ)에서 (6ㄷ)의 변화가 1인 것도 설명된다. ‘(6ㄱ)→(6ㄷ)’은 ‘친소’의 변화인 +2와 ‘높낮이 정도’의 변화인 +1이 합쳐진 3의 변화를 보이고, ‘(6ㄴ)→(6ㄷ)’은 ‘친소’의 변화인 +2와 ‘높낮이 정도’의 변화의 정도인 -1(‘낮은 어른→높은 어른’이 아닌 ‘높은 어른→낮은 어른’이기 때문에)이 합쳐져 1의 변화를 보인다.²⁶⁾

정리하면 (7)과 같다.

- (7) ㄱ. 높은 친분→낮은 친분 : +2
 ㄴ. 낮은 친분→높은 친분 : -2
 ㄷ. 낮은 어른→높은 어른 : +1
 ㄹ. 높은 어른→낮은 어른 : -1

그러므로 “‘친소’가 ‘높낮이 정도’보다 높임법 등급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주며, 친분은 높아질수록 높임법 등급이 낮아지지만 높낮이 정도는 높아지는 만큼 높임법 등급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3.2.4. ‘해라체’와 ‘해체’

해체의 격식체가 해라체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격식 상황에 놓인다고 해서 해체에서 해라체로 전환하는 것은 분명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부분 해요체나 하십시오체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는 ‘장면’으로 인한 높임법 등급의 전환이지 ‘격식/비격식’의 전환이 아니다.

이들은 등급상 차이가 있을까? 임홍빈·장소원(1995; 392~393)에서는 (8)의 예를 들어 해라체는 행동의 여유를 주는 명령으로 원리상 함부로 대함의 의미가 작용하는 비격식체인 해체보다 높은 등급이라고 했다.

- (8) 강아지에게
 ㄱ. 이거 먹어.
 ㄴ. *이거 먹어라.
 ㄷ. *이거 먹게.

임홍빈·장소원(1995)에서는 (8ㄴ, ㄷ)이 안 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대우가 지나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설명은 (9ㄴ)이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지 못한다.

- (9) 아버지의 원수에게
 ㄱ. 복수의 칼을 받아라.
 ㄴ. *복수의 칼을 받아.

반면 유송영(1994; 311~314)에서는 (10)와 (11) 예로 해체가 해라보다 ‘청자의 힘’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10) 자식 → 부모
 ㄱ. 아버지, 밥 먹어.
 ㄴ. *아버지, 밥 먹어라.

26) +는 등급이 높아짐을, -는 등급이 낮아짐을 말한다.

(11) 엄마 → 아이

- ㄱ. 그래 애야 잘 자.
- ㄴ. 그래 애야 잘 자자(자거라).

하지만 ‘유대’의 측면에서는 (12)에서 보듯 해라체가 어조(語調)에 따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도 지적한다.

(12) 동생 → 언니

- ㄱ. 언니 이것 좀 해줘.
- ㄴ. 언니 이것 좀 해줘라.

그래서 유소영(1994)에서는 해체, 해라체는 ‘힘’이 작은 화자가 ‘힘’이 큰 청자에게 말할 때(10, 12)와 반대로 ‘힘’이 큰 화자가 ‘힘’이 작은 청자에게 말할 때(11) 쓰임이 달라지며, 해체가 해라체보다 ‘힘’에서 우세하고, ‘유대’에서는 해라체가 해체보다 우세한 것으로 보았다.

위 연구 결과들에서 보듯 해체와 해라체 중 어느 쪽이 더 높은 등급을 가지는지 결정하기 쉽지 않다. 유송영(1994; 314)에서 ‘잠정적인’ 결론은 내린 것도, 임홍빈·장소원(1995; 393)에서 ‘그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것도 이런 어려움을 잘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라체와 해체는 등급에서의 차이보다는 사용영역에 차이가 있는 듯하다. 이는 하십시오체와 해요체의 분석결과인 <표 6>이 중요한 참고가 된다. <표 6>에 따르면 물음법보다 물음에 대한 답인 서술법에서 하십시오체가 월등히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라체와 해체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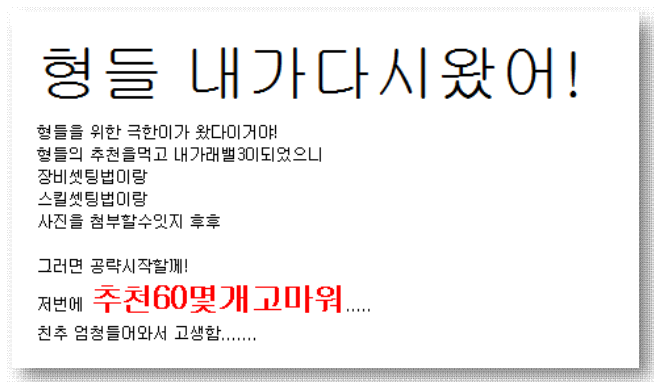
그리고 상관 장면에서는 해요체, 단독 장면에서는 해체가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13) ㄱ. 나 가방 샀다.

- ㄴ. 나 가방 샀어.

(13ㄱ)과 (13ㄴ)을 비교하면 듣는 이라는 목표점을 향해 이야기 한다면 (13ㄴ)을, (자랑하듯이) 혼잣말로 이야기한다면 (13ㄱ)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독백 상황에서도 비슷한데, ‘나’를 듣는 이로 대화하듯이 독백한다면 해체를 그렇지 않다면 해라체를 사용한다. 간접인용문에서의 중화형²⁷⁾과 글말에서 해라체가 우세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글이란 본질적으로 혼잣말에 가깝다. 인터넷 게시판의 글들을 보면 개인 생각을 피력하는 글들은 해라체, (14)에서처럼 특정인을 겨냥한 글은 해체로 나타난다.

(14)



27) ㄱ. 철수야, 선생님께서 네게 잘했다고 하셨어.

(ㄱ)의 ‘잘했다.’는 철수를 듣는 이로 하며 발화되었다면 “잘했어.”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잘했다.”라고 발화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둘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 듯 보인다. “잘했다.”는 자신의 판단 혹은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화법이고, “잘했어.”는 상대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화법이라는 것이다. 좀 더 자세한 논의는 뒷날로 미룬다.

해라체와 해체의 구분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정밀한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잠정적으로 “해라체와 해체는 등급상 차이는 없고 사용영역에서 다르다.”는 결론을 내린다.

4. 결론

학교문법의 상대높임법 서술과 20·30대의 상대높임법 인식을 비교해 보고자 한 본 논문에서는 “20·30대의 상대높임법은 일원적 3단계이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15) 하십시오체 > 해요체 > 해체·해라체

(15)를 뒷받침하는 논의는 다음과 같다.

(16) ㄱ. 하오체와 하계체는 현재의 20·30대에게는 쓰이지 않는다.

ㄴ. ‘격식체/비격식체’를 가르는 요인 중 하나인 ‘(공적/사적) 장면’은 높임법 등급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ㄷ. 하십시오체가 해요체보다 높은 등급이다.

ㄹ.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를 선택하는 요인 중 ‘높낮이 정도’보다 ‘친소’의 영향이 더 크다.

ㅁ. 해라체는 해체의 격식체가 아니다.

ㅂ. 해라체와 해체의 등급상 차이는 없다.

ㅅ. 해라체와 해체는 사용영역이 다르다.

<참고문헌>

- 고영근(1974 ㄱ), 현대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어학연구』 10-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18-157쪽
- 고영근(1974 ㄴ), 현대국어의 존비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0-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66-91쪽
- 김영희(1996), 문법론에서 본 상대 높임법의 문제, 『한글』 233, 한글학회, 161-186쪽
- 김정호(2005), 국어 청자 높임법의 변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말연구』 16, 한말연구학회, 41-74쪽
- 박혜경·권순희(2006), TV시사토론프로그램 참여자의 연령별 경어법 사용 양상, 『국어교육학연구』 25, 국어교육학회, 283-313쪽
- 서은아(2008), 공익광고 텍스트에 나타나는 높임법 연구, 『겨레어문학』 40, 겨레어문학회, 81-98쪽
- 서정수(1979), 존대말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Ⅰ), 『한글』 165, 한글학회, 33-68쪽
- 서정수(1980), 존대말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Ⅱ), 『한글』 167, 한글학회, 357-386쪽
- 성기철(1991), 국어경어법의 일반적 특징, 『새국어생활』 1-3, 국립국어연구원, 2-22쪽
- 성기철(1999), 20세기 청자 대우법의 변천, 『한국어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45쪽
- 유송영(1994), 국어 청자 대우법에서의 힘(power)과 유대(solidarity) (Ⅰ), 『국어학』 24, 국어학회, 291-317쪽
- 이경우(2003), 국어 경어법 변화에 대한 연구 (1), 『국어교육』 110, 한국어교육학회, 269-300쪽
- 이경우(2008), 국어 경어법 변화에 대한 연구 (2), 『한말연구』 22, 한말연구학회, 251-292쪽
- 이유기(2011), 반말의 성격과 청자 대우 체계의 실상, 『한국어문학연구』 5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49-82쪽
- 이은희(2010), 한국어 높임법 교육 내용 연구, 『문법교육』 13, 한국문법교육학회, 281-315쪽

- 이익섭(1974), 국어 경어법의 체계화 문제, 『국어학』 2, 국어학회, 39-64쪽
- 이익섭(1994), 『사회언어학』, 민음사
- 이정복(2004), 인터넷 통신 언어 경어법의 특성과 사용전략, 『언어과학연구』 30, 언어과학회, 221-254쪽
- 이정복(2006), 국어 경어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국어학』 47, 국어학회, 407-448쪽
- 임동훈(2006), 현대국어 경어법의 체계, 『국어학』 47, 국어학회, 287-319쪽
-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 I』,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장희은(2009), 드라마 대본 말뭉치로 알아본 현대국어 상대높임법 체계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최석재(2007), 현대국어 대우법의 화계 구분에 대한 고찰, 『한국어학』 37, 한국어학회, 397-432쪽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한 길(2002), 『현대 우리말의 높임법 연구』, 역락

[부록 1] 설문지

설문지

높임법 사용에 대한 다음 설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은 20~30대 상대높임법 인식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설문은 시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이나 “오답”은 없으며, 귀하의 이름을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본 설문은 여러분의 개인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에 본 연구조사의 성패가 달려 있사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은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 내용과 관련된 개인적인 신상이나 의견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2. 8. 1.

김 병 건

■ 다음은 귀하의 인적정보에 대한 문항입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2. 귀하의 성별은? ☐ 남 ☐ 여

■ 아래의 질문은 상황과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황을 이해한 후 적절한 대화문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래 상자를 보십시오.

“친구와 식당에서”라는 상황 아래에 대화문이 제시됩니다. 귀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화문을 골라 ☒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각 질문에 “**가능한 모든 대화문**”을 표시해 주십시오. 단 비워두지 마셔야 합니다.

1. 당신은 친구와 식당에 식사하려고 합니다.

- ☐ 뭘 시키겠습니까?
- ☐ 뭘 시켜요?
- ☐ 뭘 시킬까요?
- ☒ 뭘 시켜?
- ☒ 뭘 시킬까?
- ☐ 뭘 시키니?
- ☐ 뭘 시키냐?

1. 고모부'의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나?”에 대한 당신의 대답입니다.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열심히 하고 있어요.

☐ 열심히 하고 있어.

☐ 열심히 하고 있다.

기타 _____

2. 당신은 나가면서 마주친 삼촌'께 묻습니다.

☐ 밖에 많이 덥습니까?

☐ 밖에 많이 더워요?

☐ 밖에 많이 덥나요?

☐ 밖에 많이 더워?

☐ 밖에 많이 덥나?

☐ 밖에 많이 덥냐?

☐ 밖에 많이 덥니?

기타 _____

3. 당신은 약속장소에서 이모부'께 안내합니다.

☐ 저쪽 방에서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저쪽 방에서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 저쪽 방에서 모두 기다리고 있어.

☐ 저쪽 방에서 모두 기다리고 있다.

기타 _____

4. 당신은 외삼촌'께 잘 못 들은 대화에 대해 되묻습니다.

☐ 누가 어디에 갑니까?

☐ 누가 어디에 가요?

☐ 누가 어디에 가나요?

☐ 누가 어디에 가?

☐ 누가 어디에 가나?

☐ 누가 어디에 가냐?

☐ 누가 어디에 가니?

기타 _____

5. 당신은 할아버지'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오늘 비 온다고 합니다.

☐ 오늘 비 온답니다.

☐ 오늘 비 온다고 하네요.

☐ 오늘 비 온다던데요.

☐ 오늘 비 온다고 하네.

☐ 오늘 비 온다던데.

☐ 오늘 비 온단다.

기타 _____

6. 당신은 외할아버지'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

☐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기타 _____

7. 당신은 아버지'께 진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공부를 좀 더 해 보려고 합니다.

☐ 공부를 좀 더 해 보려고 해요.

☐ 공부를 좀 더 해 보려고 해.

☐ 공부를 좀 더 해 보려고 한다.

기타 _____

8. 당신은 이모부'께 사촌동생의 안부에 대해 묻습니다.

☐ 민수는 잘 지냅니까?

☐ 민수는 잘 지내요?

☐ 민수는 잘 지내죠?

☐ 민수는 잘 지내?

☐ 민수는 잘 지내지?

☐ 민수는 잘 지내냐?

☐ 민수는 잘 지내니?

기타 _____

9. 외삼촌'의 “어떻게 지내느냐?”에 대한 당신의 대답입니다.

☐ 그럭저럭 지냅니다.

☐ 그럭저럭 지내요.

☐ 그럭저럭 지내죠.

☐ 그럭저럭 지내.

☐ 그럭저럭 지내지.

☐ 그럭저럭 지낸다.

기타 _____

10. 당신은 약속시간이 지나서 고모부'께 전화로 묻습니다.

☐ 몇 시쯤 도착하십니까?

☐ 몇 시쯤 도착하세요?

☐ 몇 시쯤 도착하시죠?

☐ 몇 시쯤 도착해?

☐ 몇 시쯤 도착하지?

☐ 몇 시쯤 도착하냐?

☐ 몇 시쯤 도착하니?

기타 _____

11. 삼촌'의 “요즘 하는 일은 잘 되느냐?”에 대한 당신의 대답입니다.

☐ 잘 되고 있습니다.

☐ 잘 되고 있어요.

☐ 잘 되고 있죠.

☐ 잘 되고 있어.

☐ 잘 되고 있지.

☐ 잘 되고 있다.

기타 _____

▣ 아래 질문은 귀하의 마음속 순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상자를 보십시오.

보기가 주어지고 아래 예처럼 보기의 순서를 귀하의 생각대로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1. 아래는 음료수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귀하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나열해 주십시오.

①커피

②콜라

③생수

④주스

⑤녹차

① > ⑤ > ② > ③ > ④

단, 가족 중 없다면 표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외삼촌' 이 없다면 고모부, 삼촌, 이모부' 만으로 대답해 주세요.

1. 당신이 생각하기에 누가 당신과 더 가깝습니까(친합니까)?

①고모부

②삼촌

③이모부

④외삼촌

> > >

2. 당신이 생각하기에 누가 더 높은 어른'이라고 생각됩니까?

①고모부

②삼촌

③이모부

④외삼촌

> > >

3. 당신이 생각하기에 누가 가족 내 서열'이 높습니까?

①고모부

②삼촌

③이모부

④외삼촌

> > >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설문 분석 대상자와 설문 결과

번호	연령 (만)	성별	친소	어른	서열	가_서 술-(1)	가_물 음-(10)	나_서 술-(11)	나_물 음-(2)	다_서 술-(3)	다_물 음-(8)	라_서 술-(9)	라_물 음-(4)	할아 버지	외할아 버지	아버 지
2	25	1	나>가>다>라	나>다>가>라	나>다>가>라	A,B	A,B	A,B	A,B	A,B	B	B	B	A,B	A,B	A,B
4	25	1	나>라>다>가	나>라>가>다	나>라>가>다	B	B	B	B	B	B	B	B	A	B	B
5	34	1	라>나>다>가	나>라>가>다	나>라>가>다	B	B	C	C	B	B	C	C	B	B	B
6	24	1	다>라>나>가	가>나>다>라	가>나>다>라	A	B	B	B	B	B	B	B	B	B	B
7	28	1	라>다>나>가	가>다>나>라	가>다>나>라	A	A	B	B	B	B	B	B	B	B	B
12	21	2	라>다>나>가	나>가>다>라	나>가>다>라	B	B	B	B	B	B	B	B	B	B	C
23	21	1	라>다>나>가	가>다>나>라	가>다>나>라	A,B	B	B	B	A,B	B	B	B	A,B	A,B	B
25	24	1	나>가>라>다	가>다>나>라	가>다>나>라	A,B	A,B	A,B	A,B	A,B	A,B	A,B	B	A,B	A,B	A,B
26	28	2	다>나>라>가	가>나>라>다	가>나>라>다	B	B	B	B	B	B	B	B	A	B	B
27	29	1	라>나>가>다	나>라>가>다	나>라>가>다	A,B	B	B	B	A,B	A,B	A,B	A,B	A,B	B	A,B
33	23	1	나>라>다>가	나>라>다>가	나>라>다>가	B	B	B	B	B	B	B	B	B	A	B
35	26	1	라>나>가>다	가>다>나>라	가>다>나>라	A	A,B	A,B	A	A	A,B	B	A,B	A,B	A	A,B
36	20	2	라>나>다>가	가>다>라>나	가>다>라>나	B	B	B	B	B	B	B	B	B	B	C
37	27	1	라>다>가>나	가>다>나>라	가>다>나>라	A	B	B	C	B	B	B	C	C	C	C
39	23	1	나>가>라>다	나>라>가>다	나>라>가>다	A,B	A,B	A,B	B	A,B	B	B	B	A,B	A,B	A,B
47	27	1	나>라>다>가	라>나>가>다	라>나>가>다	A,B	A,B	A,B	B	A,B	B	A,B	B	B	B	A
50	24	1	라>다>나>가	라>다>나>가	라>다>나>가	A	A,B	A,B	A	A	A,B	A	A,B	B	B	A,B
51	26	1	나>라>다>가	가>다>나>라	가>다>나>라	A	B	A	A	B	B	A	A	A	B	A
52	27	1	라>다>가>나	가>다>나>라	가>다>나>라	A,B	B	B	B	A,B	B	B	B	B	B	A,B
57	26	1	가>나>라>다	가>다>나>라	가>다>나>라	B	B	A,B	B	B	B	A,B	B	B	A,B	A
58	26	1	다>라>나>가	가>다>라>나	가>다>라>나	A,B	A,B,C	A,B,C	A,B,C	A,B	A,B,C	A,B,C	A,B	A,B,C	A,B	A,B,C
59	25	1	나>다>라>가	가>다>라>나	가>다>라>나	A	B	B	B	A	B	B	B	B	A	A
64	24	1	라>나>가>다	나>라>가>다	나>라>가>다	A,B	B	A,B	B	A,B	B	A,B	B	B	A,B	A,B
65	21	2	다>라>나>가	가>나>다>라	가>나>다>라	A,B	B	C	C	B	B	C	C	B	B	B,C
68	23	1	나>라>다>가	가>다>라>나	가>다>라>나	A,B	A,B	A,B	A,B	A,B	A,B	A,B	A,B	A,B	B	A,B
72	25	1	라>가>다>나	가>다>라>나	가>다>라>나	A,B	A,B	A,B	A,B	A,B	B	B	B	B	B	A
73	25	1	라>나>가>다	가>다>나>라	가>다>나>라	B	B	B	B	A	B	B	B	A	B	B
80	26	1	라>나>가>다	가>라>나>다	가>라>나>다	B	B	B	B	B	B	B	B	B	B	C
83	25	1	라>다>나>가	가>나>다>라	가>나>다>라	B	B	B	B	B	B	B	B	B	B	C
85	25	1	나>다>가>라	나>다>라>가	나>다>라>가	A,B	B	A,B	B	A,B	B	B	B	B	B	A,B

86	27	1	라>다>나>가	가>다>나>라	가>다>나>라	B	B	B	B	B	B	C	C	B	C	B
97	22	1	라>나>다>가	가>다>나>라	가>다>나>라	A,B	A,B	A,B	B	B	B	B	A,B	A,B	A	A,B
101	20	2	나>라>다>가	가>다>라>나	가>다>라>나	A,B	B	B	B	A,B	B	B	B	B	B	B
108	29	2	나>가>라>다	나>가>라>다	나>가>라>다	A	A,B	A	A,B	A	A,B	A	A,B	A	A	A
113	26	2	나>가>다>라	가>나>다>라	가>나>다>라	A,B,C	A,B,C	A,B,C	A,B,C	A,B,C	A,B,C	A,B,C	A,B,C	A,B,C	A,B	A,B,C
117	28	2	라>나>가>다	가>라>다>나	가>라>다>나	A,B	B	B	B	A,B	A,B	B	A,B	A,B	B	A,B
119	24	2	나>가>라>다	다>가>나>라	다>가>나>라	B	B	B	B	B	B	B	B	B	B	A,B
125	27	1	나>다>라>가	다>가>나>라	다>가>나>라	A,B	A	A,B	B	A	A,B	B	A,B	A	A	A,B
128	29	2	라>다>나>가	가>다>나>라	가>다>나>라	A,B	A,B	A,B	A,B	A,B	A,B	A,B,C	A,B,C	A,B	A,B	A,B,C
130	35	2	나>라>가>다	다>가>라>나	다>가>라>나	B	B	B,C	B,C	B	B	B	B,C	B,C	B	C
131	34	1	나>라>가>다	가>다>나>라	가>다>나>라	A,B	A,B	A,B	A,B,C	A,B	A,B	A,B	A,B	A,B	A,B	A,B
132	25	1	라>가>다>나	가>다>라>나	가>다>라>나	B	B	B	B	B	B	B	B	B	B	A
133	27	1	라>나>다>가	가>나>라>다	가>나>라>다	A	B	A	A	A	B	B	B	A	B	B
135	31	1	라>나>다>가	가>다>라>나	가>다>라>나	B	B	B	B	B	B	B	B	A	A	A
138	26	2	다>라>나>가	가>나>다>라	가>나>다>라	A,B	A,B	A,B	A,B	A,B	A,B	A,B	A,B,C	A,B,C	A,B	A,B